

법사위원장을 또 한국당이?... 민주당 반발

김관영 "법사위-한국, 운영위-민주 가닥"... 홍영표 "아직 후반기 원구성 협상 진통... 오늘 원내대표 회동 결과 주목"

국회 원구성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경우 이른바 다음주 초 원 구성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막판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지난 주 금요일 회동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맡기로 가닥이 잡혔다"며 "(원 구성) 논의가 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운영위와 법사위는 그간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지연돼 왔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상식과 원칙에 따라' 운영위원장을 맡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법사위도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가 권력 및 지방권력을 차지한 정부와 여당 견제를 위해 두 상임위를 한국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김 원내대표의 말대로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두 상임위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면 원 구성 협상은 속도를 내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실과 다르며, 법사위를 양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표인도 브리핑을 통해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실과 다른 합의내용을 발표하는데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법사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대 국회 전반기의 전례와 같이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맡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히 사회개혁과제가 산적한 상황인 만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는 것이 국민상식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고 한국당이 운영위를 하되 동시에 예산결산특위도 같이 갖기로 했다.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이밖에 상임위 분리·통합,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을 위한 운영위 내 소위 설치, 각종 특위 설치 등의 문제도 논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를 비롯한 상임위를 분리하는 문제는 중기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교문위원 아니라 산업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나 국토교통위도 나눌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세 상임위를 나누려면 국민적 공감대도 있어야 하

고 국회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간을 갖고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 진선미, 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유의동,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늦게 비공개로 만나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배분, 특위 구성 문제 등에 대해 협의 중이다.

이번 회동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번 주까지 원구성을 완료하기로 지난 6일 합의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대략 원구성 방향에 가닥을 잡고 9일 오전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야가 자리에서 협상 타결이 성사되면 오는 12-13일께 본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월말 이후 약 40여일 만에 국회가 재개되는 셈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이국종 영입 실패' 놓고 보수 설전

바른미래 "한국당 해산"... 한국당 "가만 있어도 없어질 당"

자유한국당이 이국종 아주대 교수(권역의상센터장)에게 비상대책위원직을 제안했다 거절당했다는 소식을 놓고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한바탕 입씨름을 벌였다.

지난 6일 정치권에는 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 교수에게 비대위원직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바른미래당 권선주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정치적 '중증' 상태인 한국당이 중증의상 센터장이 이 교수에게 거절당했다는 보도는 국민적 실소를 자아낸다"며 "보수의 회화화를 멈추지 않는 한국당의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 경험 전무한 외과 의사에게 치료를 해달라는 웃기고 슬픈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보수를 철저히 괴멸시키겠다는 자해행위 로마제 보인다"며 "기쁘거나 바쁜 유명인 사들을 데는 괴롭히지 말고 하루빨리 해산하는 것이 보수 괴멸에 대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비교했다.

이에 한국당이 발끈했다. 운영석 수석 대변인은 8일 "가만 놔둬도 없어질 처지에 있는 바른미래당이 한가롭게 다른 당의 비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원한다면 바른미래당의 앞날을 위한 주치의의 소개해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당의 혁신과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 누구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자유한국당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바른미래당이 정치적 편견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날을 세울 일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바른미래 당권주자 하마평 무성

安·劉 가능성 낮아... 손학규·문병호·이언주 등 고심

바른미래당에서도 당권 경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8일 바른미래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예비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는 10여 명이다. 당은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 당대회를 일단 8월19일로 잡아온 상태이지만 '9월 연가론'도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전 공동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적은 가운데 재선의 하태경 의원과 이준석 전 서울 감투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 모두 바른미래당 출신이다.

이 밖에 당권 주자 하마평에 오르는 이들 상당수는 국민의당 출신이다. 손학규 전 상임선대위원장은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 상황'이므로 중량감 있는 인사

가 등판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에 따른 것이다. 최근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려다가 뜻을 접은 김성식(재선) 의원의 경우 본인의 의지는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당내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출마 요구가 나온다.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도 출마를 고려 중이지만, 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여배우 스캔들' 의혹 제기로 고발당한 만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내대표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이언주(재선) 의원, 문병호 전 인천시장 후보, 안철수 전 의원의 서울시장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장성민 전 의원, 장진영 전 서울 동작구청장 후보,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 후보 등도 출마를 고려 중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제헌 70주년' 축하 깃발은 나부끼는데... 올해로 제헌 70주년을 맞는 가운데 여야의 현안에 대한 견해차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은 아직 요원하다. 8일 국회 본청 앞에 제헌 70주년을 축하하는 깃발이 늘어 서 있다. /연합뉴스

민주 당권경쟁 이번주 후보군 구체화

계파별 단일화 모색 활발... 중앙위 전대 물 의결 13일 개최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8·25 전국대의원대회(전대)를 앞두고 친문(친 문재인) 그룹의 교통정리 등이 이뤄지면서 이번 주 내에 후보군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일단 전대 물의를 최종 의결할 중앙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만큼 이번 주에 잠재적 당권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관심사는 관리형 주자로 평가받는 이해찬(7선) 의원의 출마 여부다. 일단 출

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분위지만 후배들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의원의 카드가 청와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있다. 이 의원은 조만간 거취를 결심할 것으로 보인다.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의 '부영이 모임'이 계파주의 논란 속에 해산을 결정한 가운데 최재성(4선)·김진표(4선)·전해철(재선) 의원의 후보 단일화 여부도 관심사이며 이번 주 중에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고층 출신 송영길(4선) 의원이 이번 주 출마선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내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 소속인 설촌(4선)·이인영(3선) 의원은 단일화를 모색 중이다. 민평연 소속 의원들은 10일 회동을 갖고 전당대회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재선의 박범계 의원이 발 빠르게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전대 출마가 점쳐지는 이석현(6선)·박영선(4선)·윤호중(3선) 의원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거취 논란에 휘말리면서 출마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관측이 우세하

지만 극적인 반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고위원 선거의 경쟁구도도 서서히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안민석(4선)·유승희(3선)·박광운·유은혜·전현희(이상 재선)·김현권·박주민(이상 초선) 등이 최고위원 후보군 명단에 올라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의원총회와 초선 의원 토론회를 계기로 당 지도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발을 맞추면서도 국정을 주도하는 역동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건강한 당·정·정관계를 위해 당이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하며, 조용한 여당이 아닌 강력한 여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이 당권 주자들의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

민주당 강령 '촛불 정신' 추가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당의 강령 전문에 '촛불 정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치와 비전, 시대정신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당 강령을 전면 개편해 '100년 정당'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 강령은 전문과 경제, 외교·안보, 통일, 복지, 일자리·노동, 정치, 분권과 균형발전, 교육, 성평등·사회적약자·소수자, 문화·체육·예술, 과학기술, 환경·에너지, 언론·미디어 등 1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기존 강령에 ▲'촛불시민혁명 정신' 구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 ▲판문점선언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강령·정책분과위 실무진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 집권 1년 동안의 성과, 정부 개헌안 등을 비교 분석하면서 강령의 구체적인 문구를 도출하는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